

유아음악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 영 연*

차례

- I. 들어가며
- II. 유아음악교육학의 발달 과정
 - 1. 전반기 100년간 유아음악교육 :
188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
 - 2. 최근 20년간의 유아음악교육: 1980년대 이후
- III. 요약 및 제언
- IV. 새로운 비전 : 미래의 유아음악교육 연구를 위하여

I. 들어가며

오늘날 많은 교육가들에 의해 '유아와 음악', '음악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한 때 유아음악교육이란 노래부르기나 음악 들려주기, 손 유희, 신체표현 정도로만 인식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현장의 많은 교사는 일단 음악을 사용하거나, 들려주거나, 간단히 연주해 보게 하면서 유아들에게 음악교육을 시켰다고 스스로 평가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아음악교육은 음악의 중요한 개념이나 유아의 음악적 능력 발달단계를 기초로 하여 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 통합적인 동시에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즉 유치원 음악 활동의 대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악을 매개로 한 음악 외 활동은 아니었을까?', 혹은 '유아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교사의 음악적 취향과 소양과 이해에 의해 주도된 음악활동은 아니었을까?' 바로 이런 점에서 연

*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구자는 그 동안 우리 나라 음악교육계가 유아 음악교육연구에 대단히 미흡했었고 현장에서는 유아 중심적 음악교육의 실천이 매우 소홀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유아음악교육은 유아를 향한 단순한 음악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음 개념과 인간 발달에 기초를 둔 음악교육, 배경음악의 소극적 활용이 아니라 각종 음악교육 매체를 동원한 제재음악의 적극적 활용, 교사 주도적 음악 활동이 아니라 유아 중심적 음악 활동의 선택과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음악교육학'이란 학문의 발달 과정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미래를 향한 우리 나라 '유아음악교육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까지의 유아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연구가, 교육연구가(심리학자, 사회학자, 유아교육자, 교육학자)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포괄적 음악교육에 바탕을 둔 유아음악교육학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이들이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는 어떠했으며, 그 결과가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와 유아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이론과 실제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교수 방법이나 환경상의 개선점은 없는지 냉철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실시되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음악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진정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에 다가가는 연구를 촉진시키는 일은 매우 시기 적절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Ⅱ. 유아음악교육학의 발달 과정

여기에서는 음악교육학이 발달한 미국 유아음악교육계의 발달과정과, 비교적 서양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작된 우리 나라 유아음악교육계의 발달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학문의 발달과정상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대비시켜봄으로써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유아음악 교육학'을 진단해 보고 미래를 향한 우리 나라 '유아음악 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반기 100년간의 유아음악교육 : 188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의 음악교육 역사는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교육철학을 전수 받아 미국 내 음악교육의 공(公) 교육화를 도모한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의 활약이 시작된 1830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현재부터 약 170년간 진행되어 왔다(Mark, 1986). 그 중에서도 유아음악교육의 역사는 음

악의 공교육 시작이후 50년 뒤인 1880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유치원 교육은 Fredrick Froebel의 교육철학에 힘입어 미국 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Scott-Kassner, 1992). 초기의 음악교육 연구는 Stanley Hall 이나 Edward Thorndike와 같은 심리학자의 영향을 받아 19세기말에 시작되었지만 보다 본격적인 음악교육 연구는 다음 세대인 B. Frederick Skinner나 Jean Piaget의 이론이 활성화된 20세기 초반부터 활기를 띠었다. 이 당시 교육 연구가들의 관심은 교수의 효율성(teaching efficiency)과 표준화(standardization for measurement)로 집중되었고 추후 음악연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19세기말에 실시된 초기 음악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통한 음악교육 실태조사로서 충분한 이론적 배경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연구가 체계적, 순차적으로 계속되지 못하였으므로 음악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이렇다 할 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Phillip C. Hayden에 의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과학적 사고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 영향으로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Peter Dykema와 Jacob Kwalwasser에 의하여 예술과 과학적 사고를 병합한 교수체계의 확립을 위한 표준화 검사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Mark, 1992).

1930년대부터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연구가 본격화되었다(Scott-Kassner, 1996). 이러한 관심은 Seashore를 위시한 Iowa 학파들로 하여금 '5세 이하 유아들의 음악적 식별력(musical discrimination)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어린이의 음악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도록 독려했다(Seashore, 1938 ; Seashore et. al., 1960). 1940년대와 50년대를 휩쓴 심리학의 음악연구에의 적용을 주장하던 Seashore, Gehrken, Farnsworth, McConathy는 음악적 능력에 대한 양적 측정 방법이 음악교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음악 적성과 성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연구에 주력하였는데, 그 결과 Seashore는 음악 적성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것이지만 추후 훈련과 성숙에 의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필즈베리 연구재단(Pillsbury Foundation)은 1937년부터 1958년까지 약20여 년에 걸쳐 Pillsbury Studies라는 장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유아의 즉각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적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조사하여 밝혔다. 특히 필즈베리 스터디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적 관찰연구(long-term observational study)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Moorhead and Pond, 1942 ; 1978).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음악교육자와 심리학자간의 공동 연구관심이 꾸준히 계속되어 1960년대에도 유아의 음악적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를 불러일으켰다. Zimmerman과 Sechrest(1968)는 피아제가 설명하는 보존개념이 음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당대의 '교육학적 이론이 음악교육 이론과 어떻게 관련되어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간 연계를 시도

하였다. 이렇듯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일련의 연구 흐름은 곧 ‘음악적 경험이 유아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간의 해답을 가져다주었고 그와 같은 해답의 유출을 위하여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1970년대 이후 여러 음악 교육가의 교수법에 대한 실험 연구가 많이 보고됐다(Costanza and Russell, 1992 ; Garreston, 1976 ; Kendall, 1986 ; Shamrock, 1986 ; Scott-Kassner, 1992). 그 결과 음악에서의 개념학습, 발전학습,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는 CMP(Comprehensive Music Program : 포괄적 음악 교육 프로그램)나 MMCP(Manhattanville Music Comprehension Project) 같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여서 음악교육에서의 교수내용과 방법상의 통합과 포괄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음악교육은 음 개념 이해에 바탕을 둔 미적 경험의 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Kim, 1997).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음악연구자들의 유아들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급속히 감소하여 유아와 관련된 뚜렷한 음악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음악교육도 발전 배경은 외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894년 갑오경장이후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찬송가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류덕희, 고성희, 1996 ; 한용희, 1994). 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이 설립되고 동시에 음악은 당시 유치원 교육과정에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이상금, 1987). 근래에 들어와 우리 나라 유아교육계에서도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분야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유아교육과정에 예술을 통합시키려는 연구 경향이 매우 짙다(이경우 외, 1995 ; 장은주, 1997, 한국어린이육영회, 1995). 그러나 아직까지도 들려지는 음악은 있되 듣는 음악은 아니요, 음악활동은 있으나 음악교육은 없으며, 유아를 중심으로 하거나, 음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은 매우 미흡했었다고, 우리 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상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김영연, 1996 ; 1997 ; 1999).

100여 년에 걸친 우리 나라 유아교육사에 견주어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은 고작 30년에 불과하다. 1970년대 이후 주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유아음악교육연구는 1970년에 보고된 김성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성렬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유아교육과 에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기악’(피아노) 지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 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래곡집에 수록된 노래 곡들의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방법으로는 설문 조사 방법을 채택했으며 결과는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김성렬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2편의 연구논문이 국내의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전공자들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 논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요 주제는 (1) 노래 교재곡 분석과 (2) 유치원의 물리적 음악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초기연구와 마찬가지로 각 연구물은 이전에 실시된 연구의 부재로 인하

여 이론적 바탕이 매우 미약하였고 연구 결과의 처리 과정이 연구자 독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다(김효순, 1972 ; 이강옥, 1978 ; 육순진, 1972). 또한 당시 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 단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유아 발달 단계조차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최근 20년간의 유아음악교육: 1980년대 이후

현대 유아음악교육의 경향은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1980년대 이후의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의 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개개인이 이러한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교수방법, 교육내용의 강화를 강조한다(한방교 & 윤길근, 1998).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이후 미국 Chicago 대학의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고 음악지능을 포함하는 그의 새로운 지능에 대한 정의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음악교육 과정의 개발과 교수법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1980년대 초, 중반에 걸쳐 소홀해진 유아음악연구에 새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서양의 음악연구자들은 다시 유아의 음악발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Harvard Project Zero는 음악을 중요시하는 Art Project로 연결, 발전되면서 유아교육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여 가드너 자신도 스즈키 교수법 등 조기 유아음악 교수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고력 증진 학습의 조력자로서 음악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히 유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Cleveland Institution of Music, video tape). 한편 유아교육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세계적인 추세로서 교과영역, 교수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을 총망라하는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해 오고 있다(Cadwell, 1997 ; 이은화, 1982).

1980년대 후반이후 미국 유, 초등음악교육 연구의 특징은 음악 교수내용에 사회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것이다. Merrill-Mirsky (1988), Eve Harwood(1989)와 Cecillia-Riddell(1990)은 어린이의 놀이 노래를 관찰하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호주의 Kathryn(1997)과 우리 나라의 Kim(1998)도 여러 나라 또는 자국의 전래동요를 유, 초등 음악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Scott-Kassner와 Campbell은 음개념에 기초한 음악활동별 통합교육과정을 어린이의 연령별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음악교수법을 제시한다(1995).

우리 나라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적을 살펴볼 때, 1980년대 이후는 유아음악연구에 매우 탁월

한 양적 발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 10년간에 비하여 약 5배를 상회하는 64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국내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전공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박정빈, 1995). 연구 주제는 진일보하여 20세기를 대표하는 Dalcroze, Orff, Kodaly와 Suzuki의 교수법이 가장 많이 연구보고 되었으며, 이전과 같이 유치원의 물리적인 음악환경에 대한 연구도 계속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외의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 이론과 음악교육 프로그램도 관심 있는 논문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유아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측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김영희, 1982).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미약한 이론적 배경에 따른 무리한 결과분석이라는 연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제목에서 암시하는 연구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음악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음악을 통한 구체적인 표현지도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 의한 통합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일층 더 강조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의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음악전공자에서 확산되어 유아교육 전공자, 교육학 전공자까지도 유아음악교육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육대학원 중심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확대되어 일반대학원에서, 석, 박사논문들이 발표되었다(김혜경, 1996; 신인숙, 1994; 안재신, 1994; 이숙희, 1994; 허순희, 1997). 주요 연구주제는 198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주제 선정에 있어서 비중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는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조사하기보다는 음악환경에 대한 연구가 우선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상은 그 반대였다. 1990년대 연구의 방법적으로는 주로 실험연구가 채택되었다(김성희, 1996; 김춘희, 1995; 신인숙, 1994; 이숙희, 1994). 그러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장감이 미흡한 연구, 연구내용과 연구제목이 부적절하게 표현된 연구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유아의 가창능력이나 가창 활동 외에 듣기능력이나 청취력(audiation), 음 개념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연구로 연구범위가 확대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연구상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김우숙, 1996; 장현아,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유아들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단계가 음악발달과 연관되어 심도 있게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또한 특정 음악교수법의 효과를 특정 음악활동과 연결하여 살펴보는 연구(예: 악기지도에 있어서의 오르프 지도법의 효과)가 증가한 점이라던가 음악과 다른 영역을 통합하여 그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점등은 유아음악연구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성인, 1994; 심명숙, 1994). 그리고 교수내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서양음악 중심의 음악활동을 탈피하고 우리 것(예: 전래동요, 국악)에 대한 연구와 교수는 세계적 추이에 부응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할 수 있다(김보경, 1997; 이명일, 1994; 정미라, 1994; Ahn, 1998; Kim, 1999).

Ⅲ. 요약 및 제언

외국의 유아음악연구를 요약해 보면, (1) 종교적 이유에서 시작된 가창교육이 음악교육의 시발점이 되었고, (2)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은 자연히 '어디에서 출발할까'로 연결되어 유아의 음악적 재능을 조기 발전하는 법, 음악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준화 검사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3) 최근에는 국가와 세계가 추구하는 교육적 흐름에 맞추어 '어떠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때 최대한 음악 교육적일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유아 음악교육과정의 점검 및 프로그램 개발'은 주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여 Scott-Kassner(1996)는 반드시 실시해야 할 유아음악연구의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나열한다.

첫째, '유아의 음악적 행동'

 '음악적 행동과 그 외 전반적인 행동 발달과의 관계변화'

 '음악적 지능의 측정 방법'

둘째, '유아의 음악에 대한 가치 판단'

 '음악에 대한 유아의 기호 변화'

 '음악적 지능과 기존의 발달 이론과의 관계'

셋째, '유아의 음악성과 사회적 요소와의 관계'

 '교사와 유아의 음악적 행위의 관계'

 '음악적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인데

그 동안의 연구 진척 사항을 보면 첫째보다는 둘째 주제가, 둘째보다는 셋째주제가 훨씬 더 미흡하게 실시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유아음악 연구동향은 한마디로 유아의 단순한 음악적 반응을 조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나아가 음악교육과정의 多문화적 접근, 음악교육내용의 다양성 추구라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음악교육이 음악교육 내용의 심의, 선정에서 음악을 통한 창의성 발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디까지 음악교육내용의 한계를 두며, 어떻게 현재의 유아교육과정에 적용시키나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주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아교사는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비전을 구비함으로써 이전의 교사 중심적이며, 전달 중심적이었던

전통적 교수방법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유아음악교육 연구가는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지도 가능한 다양한 음악교수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사에게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

한편 193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유아음악교육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1970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년에 걸쳐 숨가쁘게 진행된 우리 나라 유아음악 연구를 회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아음악 연구는 피 연구자인 유아의 발달능력과 발달단계, 그들을 교육하는 장소인 유아교육기관 현장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므로 연구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현장에서의 적용력도 미흡하다. 따라서 학문간(음악과 유아교육)의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유아음악교육연구, 즉 유아, 음악, 교육관련자들의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장성을 상실한 음악연구는 생명을 잃으며 음악적 이해가 결여된 유아교육연구는 음악 교육적 측면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우리 나라에 음악교육학과 유아교육학을 연결해 주는 학과간의 상호교류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음악전공자, 유아교육전공자, 교육학 전공자가 유아음악연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에 포함하여 상호간에 학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해야만 살아있는 유아음악연구로 남게 될 것이다.

둘째, 연구 주제가 시대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대가 추구하는 교육학 이론이 현대의 유아음악연구에 반영될 때 연구의 참신성을 지닌다. 이제 현대의 음악교육은 뼈아제, 브르너, 불름, 가네에서 확대되어 비고스키, 가드너의 교육이론과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방식도 포함시킬 정도로 新 교육학 이론의 발전과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

셋째, 연구방법이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양적 연구이건 질적 연구이건 간에 연구방법 선택에서의 즉흥성은 사라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알려고 하는 내용에 의해 연구 방법이 정해져야 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의 많은 이론이 외국학자들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어 빠른 속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들의 교육이론이나 교수법이 그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문화와 정서에 적합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거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유아의 음악적성이나 음악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형 음악능력 표준화 검사도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 실용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음악 용어나 음악교육 관련 개념 정의가 연구자마다 불일치하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음악성(musicianship)이 음악적 재능(musical talent)이나 음악적성(musical aptitude),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과 혼동되어 사용되거나 음악성취도(musical achievement)나 청취력(audiation) 등의 용어가 명확한 설명이 없이 빈번히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은 고쳐져야 하며 연구보고자는 결과를 논하기 전에 미리 용어의 정의를 마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대로 인접학문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다면, 이전의 연구자의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결과 제시는 보다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의 이론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수정되고 일반화되어 연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IV. 새로운 비전 : 미래의 유아음악교육 연구를 위하여

세계는 현재 매우 급속도로 다각적인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유아음악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중 표현생활에서도 음악, 미술, 신체활동을 통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력의 증진은 매우 강조되어 왔으며 동시에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많이 제안되어 왔었고 새로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좀 더 강조되고 구체화되기도 하였다(교육부, 1999). 그러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표현생활의 교육목표 설정은 음 개념 중시의 포괄적인 음악교육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교수방법도 유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음악적 표현과 반응을 유도하는 유아음악교육의 목표를 강조하기에는 추상성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과 이해는 유아 교사교육에게 절대 필수적인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유아음악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1) 유아음악교육은 유아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단계와 음악적 능력의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2) 현대의 유아음악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상(방사형, 선형)의 통합과 교과 영역상(문학, 사회, 언어, 수, 과학, 음악, 미술)의 통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음악활동은 음악 영역 내에서 통합(가창, 악기연주, 감상, 창작)됨과 동시에 예술 영역 내에서 통합(integration of music with visual artistic and body movement expression)과 환경 상의 통합(유치원과 가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3) 유아교육기관의 현장성에 대한 연구자의 고찰은 유아음악교육 연구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 아무리 훌륭한 유아음악교육 교수-학습 모델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 (4) 유아음악교육은 언뜻 보기에 즉흥성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계획된 수업안에 의하여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현실적인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미래 유아음악교육학의 발전 방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마땅하며 새로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바 세계 문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 문화, 우리 음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유아음악교육학은 유아교육학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9)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교육부.
- 김보경. (1997). 전래동요를 활용한 유아음악 학습자료 개발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렬. (1970). 유치원 노래 교재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인. (1994). Suzuki Method를 이용한 유아의 노래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희. (1996). 음악감상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개념 및 그림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희. (1982). 유아의 기초적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연. (1996).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 학지사.
- 김영연. (1997). 동요분석에 의한 통합적 유아음악수업모델. 음악교육연구. 제16집. 1-28.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음악교육학회.
- 김영연. (1999). 유아음악연구의 흐름. 유아음악교육 교사연구회. 31-40.
- 김우숙. (1996). 유아의 음악청취력 향상을 위한 분석적 감상수업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춘희. (1995). 포괄적 음악교육 접근이 5세 유아의 음악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혜경. (1996). 유치원과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효순. (1972). 유아의 리듬교육을 위한 환경분석-서울시내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류덕희, 고성희. (1996). 한국동요발달사. 서울 : 한성음악출판사.
- 박정빈. (1995). 유아음악교육 문헌 관계 한국 석. 박사 학위논문의 총람 및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인숙. (1994). 아동의 연령과 적응유형에 따라 음악 학습프로그램이 아동 음악적성에 미치는 효과. 효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심명숙. (1994). 유아리듬학습에 대한 Orff, Dalcroze 프로그램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안재신. (1994). 상상력 개발을 위한 유아기 음악교육.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육순진. (1972). 피아노 기초연습의 효과적 지도법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강옥. (1978). 조기음악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경우 · 이상금 · 이은화 · 박혜경 · 김세희 · 한진이. (1995). *5개국 전래동요에 관한 연구*. 서울 : 창지사.
- 이명일. (1994). 전래동요와 창작동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금 (1987). *한국근대 유치원 교육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숙희. (1994). 5세 유아의 음악청취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이은화. (1982). 유아교육의 통합적 접근. *어린이교육*. 제5집. 6-7.
- 장은주. (1997). 노래 그림책이 유아의 읽기 및 음악적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미라. (1992). 유치원 교육활동에서의 한국 전래동요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현아. (1990). 유아음악교육에 적절한 학습활동 개발에 관한 연구 : - 4, 5, 6세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어린이육영회. (1995). *한국전래동요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큰 책*. vol.1-2.
- 한방고, 윤길근. (1998).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서울 : 동문사.
- 한용희. (1994). *한국의 동요*.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허순희. (1997).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놀이중심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Ahn, Jaeshin. (1998). The teaching practicum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early childhood. In *The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Early Childhood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Stellenbosch, South Africa.
- Cadwell, L. B. (1997). *Bringing Reggio Emilia Home : An Innovative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김희진, 오문자 역,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 교육). 서울 : 양서원.
-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Nurtured by Love*. Telos Production.(video tape)
- Costanza, P. & T. Russell. (1992). Methodologies in music education. (In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Ed., by R. Colwell) NY : Schirmer Books. 498-508.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A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Y : Basic Books.

- Garreston, R. (1976). *Music in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 Harwood, Eve. E. (1989). The memorized song repertoire of children in grades four and five in Champaign, Illinoi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A48(07). p.1691.
- Kendall, J. (1986). Suzuki's mother tongue method. *Music Educators Journal*. 72(6). 47-50.
- Kim, Y. H. (1997). Comprehensive musicianship today : A case study of San Diego State University. UMI Dissertation services. 0055. Ann Arbor.
- Kim, Y. Y. (1998).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s : col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Kim, Y. Y. (1999).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s : col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No. 33. 38-45.
- Mark, M. L. (198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NY : Schirmer Books.
- Mark, M. L. (1992). A History of music education research. (In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Ed., by R. Colwell) NY : Schirmer Books, 48-59.
- Marsh, Kathryn M. (1997). Variation and transmission processes in children's singing games in an Australian playground.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 McMahon, O. (1987). An Exploration of aesthetic awareness in preschool age children.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9. 1-6.
- Merrill-Mirsky, C. (1988). Eeny, Meeny, Pepsadeeny : Ethnicity and gender in Los Angeles.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 Moorhead, G., and Pond, D. (1942). *Music of Young Children*. Santa Barbara : Drawer H-H. Pillsbury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usic Education.
- Moorhead, G., and Pond, D. (1978). *Music of Young Children*. Santa Barbara : Pillsbury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usic Education. 1-21.
- Riddell, Cecillia. (1990). Traditional singing gam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os Angeles. Unpublished Dissert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Scott-Kassner, C. (1992). Research on music in early childhood. (In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Ed., by R. Colwell) NY : Schirmer Books, 633-650.
- Scott-Kassner, C. (1996). A meta-view of research and practice : Propositions for the ISME Early Childhood Commiss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Early Childhood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_ Winchester, UK. 1996. 1-14.

- Seashore, C. E. (1938). *Psychology of music*. NY : McGraw-Hill Book Co.,
- Seashore, C. E., Lewis, D., and Saetveit, J. G. (1960). *Seashore measures of musical talents*.
NY :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Original publication in 1939).
- Shamrock, M. (1986). Orff Schulwerk : An integrated found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72(6). 26-31.
- Zimmerman, M. P., and Sechrest L. (1968). How children conceptually organize musical sounds.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50256. Northwestern University.

ABSTRACT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Past, Present and Future

Kim, Young-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trospect of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abroad so as to guide new vision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cademic area.

From the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the some features(e. g., the main stream of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research method and teaching content) were shared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the differences existed between the countries in terms of the periodical length of research history and the emphasized research topics. For example,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devices for child's musical aptitude or achievement were developed in abroad while it was not in our case.

Major problem in the current early childhood music research in Korea was the lack of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between two academic a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music education. Past research were performed by the music majors as well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s without inter-communication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into the practical situation seems to be low.

From this study, those followings we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First, early childhood music research needs to be concerned both with the theories of music education and those of child development as well.

Second, early childhood music educators need to apply diverse types of curricular integration in terms of curriculum per se., (e.g., thematic web ; threaded ; immersed curriculum), subjects (e.g., social studies, literature), musical activities (e.g., singing, listening, playing), artistic application(e. g., movement, visual art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e.g., home, preschool) in teaching of music to their children.

Third,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hould be processed with the basis of pre-designed short-term as well as long-term teaching plans.

Lastly, the suggestions in the above need governmental level supports in order to be activated through the long time with concrete methods.